

목 차

주주총회소집공고.....	1
주주총회 소집공고.....	2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4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4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4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5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5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6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6
III. 경영참고사항	7
1. 사업의 개요.....	7
가. 업계의 현황	7
나. 회사의 현황	14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22
<input type="checkbox"/> 재무제표의 승인.....	22
<input type="checkbox"/>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107
<input type="checkbox"/>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108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09
가. 제출 개요.....	109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109
※ 참고사항.....	1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 년 2 월 27 일

회 사 명 : 삼화페인트공업(주)
대 표 이 사 : 배 맹 달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성곡동)
(전 화) 031-499-0394
(홈페이지)<http://www.samhw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보 (성 명) 김 경 식
(전 화) 02-765-3641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76기 정기)

삼가 주주여러분의 건승하심을 앙축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9조에 의하여 제76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3월 24일(금요일) 오전 10시

2. 장 소 : 본점 안산공장 강당(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별망로 178 (성곡동))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①감사의 감사보고 ②영업보고
③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76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포함)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경영참고사항의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을 당사 본점 및 지점, 명의개서 대행회사에 비치하고 금융위원회 및 한국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과 당사 홈페이지에 공시 및 게재하였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라도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 ·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6.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①체온측정계로 체온 측정, ②마스크 착용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총회장 건물 출입 전 ③손소독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 참석자의 체온 측정결과 발열 등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으로 안내 및 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공용표 (출석률: 100%)	이정훈 (출석률: 100%)	심달훈 (출석률: 83%)
			찬 반 여부		
1	2022-01-21	제75기(2021사업년도)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제75기(2021사업년도)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내부회계관리규정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ESG 경영 위원회 설치의 건	찬성	찬성	-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보고의 건	찬성	찬성	-
		※ 보고사항 2021년 대표이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의 건	-	-	-
		※ 보고사항 2021년 감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의 건	-	-	-
2	2022-01-24	임원(이사보 포함) 인사에 관한 건	찬성	찬성	-
3	2022-02-07	제75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찬성	-
		이사후보 추천의 건	찬성	찬성	-
		이익잉여금 처분액 결정의 건	찬성	찬성	-
4	2022-02-21	제75기(2021사업년도)(수정)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제75기(2021사업년도)(수정)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하나은행 한도대출 및 당좌차월 재약정의 건	찬성	찬성	-
		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찬성	찬성	-
		준법지원인의 준법활동평가 보고의 건	찬성	찬성	-
5	2022-03-25	대표이사 중임의 건	-	찬성	찬성
		임원 연봉 결정의 건	-	찬성	찬성
6	2022-04-18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	찬성	찬성
		현지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	찬성	찬성
		임원배상책임보험 갱신의 건	-	찬성	찬성
7	2022-05-16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	찬성	찬성
		한국산업은행 단기한도대출 기한연장의 건	-	찬성	찬성
8	2022-08-16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찬성	불참
		준법통제기준 개정의 건	-	찬성	불참
		이사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	찬성	불참
9	2022-10-17	투자법인 추가 출자의 건	-	찬성	찬성
		한국산업은행 산업운영자금 차입(대환)의 건	-	찬성	찬성
		현지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	찬성	찬성
10	2022-11-21	대표이사 선임의 건	-	찬성	찬성
		임원(이사보 포함) 인사에 관한 건	-	찬성	찬성
11	2022-12-19	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	찬성	찬성
		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	찬성	찬성
		투자법인 자금대여 연장의 건	-	찬성	찬성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해당사항 없음.

위원회명	구성원	활동내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고
사외이사	2명	3,000	97	48	-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등기이사(사외이사 포함)의 총보수 승인금액임.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운송주선 등 용역거래	(주)삼화로지텍 (종속회사)	'22.01.01~'22.12.31	18,828	3.5%

※ 상기 비율은 2021년 별도 재무제표 상 매출액 대비 비율임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 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백만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 해당사항 없음.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당사와 종속회사는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 IT 부문, 기타 부문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은 종합도료 제조사로서 건축용 도료, 공업용 도료 등 고품질의 제품을 국내 800여개 대리점 유통망과 기업 영업을 통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부문 이외에 (주)에스엠투네트웍스는 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리, 컨설팅 등의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삼화로지텍은 운송주선업을 영위하고 있고, (주)유씨에이치과트너스는 투자 및 자문업을,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는 키르기스스탄에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1) 산업의 특성

도료산업은 화학제품 원료기술과 응용기술이 집약된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서 도료는 건설, 철강, 금속, 자동차, 조선 등 광범위한 전방산업의 마감재로 사용돼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용 도료는 전통적인 건설산업 수요 외에 최근에는 셀프페인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의 직접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대량 생산체제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체제를 갖췄으며, 과거 중소기업체가 경쟁하던 시기에서 점차 첨단 기술 기반의 품질,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와 고객 응대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도료는 제품의 특성상 반제품 형태로 중간 소비자(도장업자 또는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도장공정을 거친 후 완성된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도료산업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아 유가, 환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반제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설, 자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도료업계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외 환경 규제강화로 친환경 도료의 수요와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해외시장 확대와 도료 아이템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성장성

도료산업은 건설, 자동차, 조선 및 전자 등 전방산업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사회간접자본(SOC), 재정비·재개발 사업과 같은 정책에 민감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발표한 <KDI경제동향>에 따르면 최근 우리 경기는 대내외 금리 인상의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며 수출부진이 심화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향후 경기 하방압력이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건축용 도료의 매출 등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건설투자의 경우 증가폭이 확대되고 있으나, 관련 선행지표는 부진한 흐름을 지속하여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주택부분의 경우 미분양 주택수가 증가하고, 착공도 큰 폭의 감소세가 지속되어 주택시장의 침체는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설비투자는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투자가 호조를 보이며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이는 반도체 부문의 중장기적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계경제 또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고물가에 대응한 강도 높은 통화긴축 기조로 다수의 국가에서 소비와 제조업 심리부진이 심화되고 있어 당분간 경기둔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도료산업은 건설경기 등 전방산업 경기 변동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건축용 도료는 계절적 요인 및 정부 정책과 관련한 경기동향에 따라 주기적인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건축용 도료는 일반 소비자들의 셀프인테리어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직접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친환경 프리미엄 제품 개발과 출시 또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4) 계절성

건축용 도료 수요는 기후에 민감하기 때문에 작업환경이 좋은 봄, 가을 판매량이 많고 여름과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름 장마 및 겨울철 이상 고온에 대한 기후 변화 불확실성으로 계절별 편차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공업용 도료는 계절에 따른 기후 영향을 덜 받는 대신 전방산업 경기에 따라 매출구조가 변화합니다.

(5) 국내외 시장여건

당사를 포함한 종합 도료제조사는 케이씨씨, 노루페인트, 강남제비스코, 조광페인트 등이 있습니다. 기술력과 브랜드 파워를 겸비한 대기업 위주로 시장이 집중되면서 이 상위 5개 회사가 전체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 규제 강화로 인해 친환경 및 기능성 도료 등 높은 수준의 품질을 요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 상위 업체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비 인식이 수동적에서 능동적으로 변화하고, 다양한 유통 경로를 통해 소비자들과의 접점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별 선택 관심도가 높아지는 산업으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페인트가 단순히 보여지는 역할만이 아닌 그 기능과 의미가 내포된 제품을 요구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해외 법인을 통해 해외 수요 변화에도 주시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6)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건축용 도료 산업은 품질(친환경성, 작업성 등), 인지도, 구매편리성, 사후 관리 등이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여기에 고기능성, 가격경쟁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기용제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료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으며, 고기능 프리미엄 도료의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강화된 환경 규제를 준수하면서 동시에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술력, 설비, 신제품 개발 능력을 확보한 도료제조사가 경쟁 우위를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사는 오랜 경험과 기술력 그리고 800여개 대리점 유통망을 통해 동종사 대비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증가하고 있는 셀프페인트 시장에서도 프리미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제품개량을 꾸준히 하며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공업용 도료 또한 주요 철강사에 납품하고 있는 PCM 도료를 비롯해 플라스틱 도료, 패키징 도료, 자동차 도료 등 각종 산업 전반에 걸쳐 시장점유율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특히,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환경친화적인 분체도료의 경우 공주공장에 전용생산 시설과 연구소를 갖추고 품질과 생산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매출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기능성 도료인 재난방지 도료, 그리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차열도료 등에 대해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R&D 투자와 시장 개척, 고부가가치 제품 출시 및 고객만족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여 경쟁력을 강화, 향후 미래 도료 시장에서도 가장 먼저 앞서갈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입니다.

<IT>

(1) 산업의 특성

IT산업은 통신서비스 및 IT를 활용한 지식정보사회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인프라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제공에서 더 나아가 IT와 업무가 결합된 컨설팅서비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사용 등으로 기업 활동의 전면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IT가 융합된 산업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최근의 IT서비스는 인프라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를 활용하여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성장성

국내 IT산업은 삼성SDS, LG CNS, SK C&C 등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주요 고객은 그룹 계열사와 그 외 민간기업, 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며 일반적인 IT시스템 구축/운영에서 나아가 IT시스템 통합 구축/관리, 클라우드 서비스, 빅데이터 구축/분석 서비스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대면 사업의 확대, 기업의 디지털전환 전략 가속화 등의 영향으로 기업 Needs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국내 IT산업의 규모는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IT산업 중 IT시스템 구축/운영 산업은 각 기업이 설비투자과 무형자산 투자를 결정하는 경영 환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의 정보 인프라 구축 계획과 사업수행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비대면 시장의 급속한 확장, 고객중심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의 확대 및 디지털 전환이 기업의 주요 화두로 급부상함에 따라 급변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이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인식되면서 경기변동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과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던 IT시스템 시장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정보화 능력을 갖추면서 대규모 신규 IT시스템 구축보다는 기존 IT시스템 운영/관리 영역이 주요 수익원이 되며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입니다. 그룹 계열 IT시스템 기업은 그룹 및 계열사의 IT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수주로 규모를 성장시켰습니다. 최근에는 비대면 시장의 급속한 확장, 고객중심관리 시스템 사업의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IT시스템에 대한 기업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IT시스템 부문은 산업과 기업의 업무 프로세스 이해와 프로그램 설계에 대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IT통합시스템 구축과 관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IT시스템 설계/개발/통합유지보수, IT자산관리, 데이터 분석, ERP정보관리 등의 솔루션 공급에 대한 기술력과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IT시스템 구축사업에서의 지속성장을 위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고객중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기술력 및 전문인력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타>

□ 운송주선

(1) 산업의 특성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①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 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②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③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서비스는 경제성장, 산업의 발전으로 물류전략이 고도화되고 핵심사업 집중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 등으로 인해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쪽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2) 성장성

정부의 물류시스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졌으며 산업의 확장, 온라인쇼핑 시장 확대, 글로벌화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한 물류서비스에 대한 고객 요구가 높아졌습니다. 이에 맞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물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물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지역 경제규모와 교역량이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여 물류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 및 지속적인 산업구조 개편이 이뤄지면 산업 전반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비대면 배송의 중요성이 확대되는 추세로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물류 실적은 물동량에 따라 변동하므로 경기에 따라 물류산업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각종 경제상황 즉 경기변동, 경제성장률, 수출입물동, 기후, 국제정세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이러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운송업 특성상 세계 유가변동과 계절에도 민감한 편입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국내 운송업계는 도로교통 정체, 효율성이 떨어지는 비영업용 화물차의 높은 수송분담 구조, 낙후된 화물터미널 시설 및 화물유통 정보시스템 등 구조적 문제로 운송 효율이 낮은 실정입니다. 또 국내 운송업체는 일부 주요 업체를 제외하고 개별 차주 형태의 영세업체로 시장 진입장벽이 낮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로 인해 국가 전반의 물류서비스 경쟁력과 수익성이 떨어지는 상태이며 당사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물류운영 품질 향상과 사업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5)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과거에는 원가절감에 의한 비용경쟁이 주였으나, 근래에는 보다 다양하고 복잡한 환경에서 고객 요구를 효과적,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능력이 중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비용경쟁력 외에 물류사업 기술, 네트워크 연계로 다양한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물류보안, 안전시스템 강화 및 IT시스템 활용을 통한 공급망 가시성과 안정성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당사 운송주선 부문은 이러한 시장 흐름에 맞추어 내부 IT시스템 활용, 구축, 안정화 진행 작업으로 제조·리테일과 관련한 통합 물류 시스템을 통해 축적된 우수한 서비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금융

(1) 산업의 특성

UCH CREDIT(이하 'UCHC')은 키르기스스탄 관련 법률에 의거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에 등록 후 영업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금융에서 상업은행을 제외한 Microfinance Organization(이하'MFO')은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Microfinance Company(이하 'MFC'), Microcredit Company(이하 'MCC'), Microcredit Agency(이하 'MCA')로 구분됩니다.

MFC는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신기능이 있으며, MCC 및 MCA는 수신기능이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에 MFC와 차이가 있습니다. UCHC는 MCC에 속하며,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 및 기업입니다.

(2) 성장성

2021년말 기준, 키르기스스탄에는 23개 상업은행과 10개의 MFC, 86개의 MCC, 37개의 MCA, 88개의 신용조합이 활발히 영업 중이며, NBKR(National Bank of Kyrgyz Republic)로부터 관리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MFC 및 MCC는 은행업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최근 수년간 지속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와 주요 경제교역국인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등의 극심한 경제불황은 이들 국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큰 타격을 입혀 2021년말 키르기스스탄 인플레이션은 약 12%까지 상승했습니다. 특히, 전 세계를 강타한 COVID-19의 영향과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러시아 경제제재는 인근 주요 경제국과 약 70% 이상의 경제관계(무역 및 해외노동자 송금 등)를 유지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으며, 최근 러시아의 군사동원령 발표는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환율 급등락과 경제위축 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및 시장여건

키르기스스탄 주요 산업별 분포는 2021년말 기준 농축산업 15%, 가공업 18%, 건설업 8%, 도·소매 및 무역관련업 59%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부분 러시아, 카자흐스탄, 중국 등과 연관되어 있어 이들 국가의 경제변동성에 매우 민감합니다.COVID-19의 확산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산업 전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2022년 5월 말부터 러시아 루블화가 다소 안정세를 유지함에 따라 키르기스스탄 화폐(KGS)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계속 주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4) 시장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 및 회사의 경쟁상의 강점

UCHC는 수신기능이 없고, 직·간접적으로 규정된 자본금 및 운영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동업계에서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인은 운영자금규모, 대출취급비, 대고객 서비스의 질 등입니다. 금융업은 규모의 경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운영자금 규모 확대는 필수적이며 수요변화에 맞는 신상품을 개발하여 발빠르게 운영 중입니다. 특히,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상당기간 경기침체가 전망되며 이로 인한 대출연체 급증이 예상되어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리스크 관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2022년은 COVID-19, 중국의 지역 봉쇄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글로벌 이슈가 많은 한해였습니다. 국제 정세 혼란은 원자재 수급 불안 및 가격 폭등으로 이어졌고, 고물가에 따른 가계 구매력 감소와 경기침체 우려 등 심리 악화로 경기가 위축되어 전방산업에 영향을 주고 원재료 비중이 높은 도료산업에 비우호적인 대외환경이 지속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하반기 들어 원자재 가격이 다소 안정되며 급등하던 환율 또한 하락하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거시적 위협요소에도 차별화된 제품 개발, 품질 우선주의 및 고객과의 신뢰 유지 등으로 시장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두되는 친환경 이슈에 대응하여 강화된 정부 규제에 적합하고, 기존 도료보다 부가 기능이 추가된 도료를 꾸준히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안정적인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시장 점유율 확대를 꾀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고루 분포된 대리점 유통망을 바탕으로 철저한 고객 관리 및 소통을 유지하며, 수익성 확보를 위한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적극적인 투자로 경쟁력 확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도료시장을 벗어나 중국, 베트남, 인도 등의 현지 법인을 통해 해외 시장 확보와 새로운 판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현지에 맞는 제품군의 연구개발로 해외시장 점유율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가 및 주요 원재료 가격변동이 심한 상황이나 대체원료 개발, 효율적 비용 집행으로 원가 절감을 실현하는 한편, 탄소절감도료, 재난방지도료, 에너지절감도료, 유해물질 저감도료 등 ESG경영을 결합한 고부가가치 아이템 중심으로 매출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IT>

최근의 IT시스템 시장은 기업이 일정 수준의 정보화 능력을 갖추면서 대규모 신규 IT 시스템 구축보다는 기존 IT 시스템 운영/관리 영역이 주요 수익원이 되며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을 추구하면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역량을 고도화 시키는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룹 계열 IT시스템 기업은 그룹 및 계열사의 IT시스템 구축/운영 사업의 수주로 규모를 성장시켰고, 최근에는 비대면 시장의 급속한 확장, 고객중심관리 시스템 사업의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따라 IT시스템에 대한 기업투자 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당사의 IT부문은 그룹 및 계열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서비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분석, 고객중심관리 시스템 구축, 디지털 전환에 대응하여 기술력 및 전문인력 등의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시장변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기타>

□ 운송주선

육상운송산업은 기본적으로 내수경기, 국제유가, 수출입 물동량 등의 영향을 받습니다. 당사는 영업지역이 국내로 제한되어 있어 해운산업 등의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으나,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고 경쟁이 치열한 산업으로, 물류서비스 경쟁력 및 수익성이 선진국 대비 열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비대면 배송의 중요성이 확대되며 오프라인 보다는 온라인 성장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물류사업의 다각화 및 수익성 개선에 방점을 두고 물류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금융

2022년 2월 발생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정치 및 경제 부분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키르기스스탄을 포함한 중앙아시아 소재국가는 급격한 환율변동, 고유가 등 더욱 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산업전반 침체가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UCHC는 리스크 관리 및 자산 건전성 관리에 중점을 두고 보수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포트폴리오 구성 또한 이러한 기조를 유지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회사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3개의 부문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사업부문	대상회사명	주요 제품의 명칭 등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삼화페인트공업(주) 흙앤톤즈(주) (주)삼화대림화학 위해삼화도료유한공사 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SAMHWA PAINTS VINA COMPANY LIMITED SAMHWA-VH COMPANY LIMITED SAMHWA PAINTS(M) SDN.BHD. SAMHWA PAINTS INDIA PRIVATE LIMITED SAMHWA PAINTS SOUTH INDIA LLP(주1)	건축용 도료, 공업용 도료 등
IT	(주)에스엠투네트웍스	S/W, 시스템 개발 및 판매
기타	(주)삼화로지텍 (주)유씨에이치파트너스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0호	운송 주선 투자자문, 소매금융 부동산 투자 및 임대

(주1) 당기 중 SAMHWA PAINTS SOUTH INDIA LLP는 자본금 회수가 완료되었으며, 청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① 당기 및 전기 중 연결실체가 영위하는 영업에 따른 부문별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총매출액	668,583,599,039	13,011,737,580	20,469,632,606	(56,025,437,574)	646,039,531,651
내부매출액	(32,489,773,079)	(4,431,264,820)	(19,104,399,675)	56,025,437,574	-
순매출액	636,093,825,960	8,580,472,760	1,365,232,931	-	646,039,531,651
영업이익(손실)	21,006,226,483	361,012,263	(325,054,741)	(1,187,789,683)	19,854,394,322

(전기)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총매출액	647,890,470,474	9,597,028,197	20,657,386,272	(46,538,984,249)	631,605,900,694
내부매출액	(23,172,419,829)	(4,198,238,619)	(19,168,325,801)	46,538,984,249	-
순매출액	624,718,050,645	5,398,789,578	1,489,060,471	-	631,605,900,694
영업이익(손실)	(2,069,002,476)	415,613,522	1,296,870,981	1,180,177,901	823,659,928

②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영업부문별 부문자산 및 부문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기말)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자산총계	609,043,492,023	7,537,973,732	31,595,562,948	(60,990,754,570)	587,186,274,133
부채총계	293,600,347,892	4,786,853,621	17,518,182,819	(28,444,067,881)	287,461,316,451
차입금 및 사채	148,396,894,089	2,642,800,000	15,191,398,762	(7,394,979,690)	158,836,113,161

(전기말)

(단위: 원)					
구분	도료 및 화학제품	IT	기타	연결조정	합계
자산총계	634,440,731,471	7,852,024,409	35,715,836,859	(65,910,856,573)	612,097,736,166

부채총계	324,881,737,054	4,806,676,761	18,266,092,965	(31,778,779,295)	316,175,727,485
차입금 및 사채	168,797,709,139	2,642,800,000	16,121,387,907	(12,099,916,736)	175,461,980,310

(2) 시장점유율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삼화페인트>>	16%	16%	16%
A사	29%	31%	31%
B사	20%	20%	19%
C사	10%	9%	9%
D사	9%	7%	7%
기타	16%	17%	18%

- ※ 국내도료시장 전체 매출규모와 도료사들의 매출규모를 추정하여 시장점유율을 계산하였으며, 상기 표상의 수치들은 추정치이므로 실제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IT, 기타 부문은 아직 시장 규모대비 점유율이 미미하여 시장 점유율 산정을 생략하였습니다.

(3) 시장의 특성

<도료 및 화학제품 제조>

도료산업은 화학제품 원료기술과 응용기술이 집약된 정밀화학공업의 한 분야로서 도료는 건설, 철강, 금속, 자동차, 조선 등 광범위한 전방산업의 마감재로 사용돼 기능과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건축용 도료는 전통적인 건설산업 수요 외에 최근에는 셀프페인트에 대한 관심 증가로 개인의 직접 수요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산업 초기에는 대량 생산체제가 주를 이뤘으나 현재 변화하는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갖췄으며, 과거 중소기업체가 경쟁하던 시기에서 점차 첨단 기술 기반의 품질, 브랜드 파워, 네트워크와 고객 응대 능력 등을 갖춘 대기업 위주의 시장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도료는 제품의 특성상 반제품 형태로 중간 소비자(도장업자 또는 제조업체)에게 납품하고 도장공정을 거친 후 완성된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제공됩니다.

또한 도료산업은 원료 수입 비중이 높아 유가, 환율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으며 반제품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건설, 자동차, 전자 등 전방산업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도료업계는 경기 불황 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는 친환경,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에 집중하는 추세입니다. 국내외 환경 규제 강화로 친환경 도료의 수요와 전환이 더욱 가속화되고, 해외시장 확대와 도료 아이템의 범위가 확장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IT>

IT산업은 통신서비스 및 IT를 활용한 지식정보사회 발전과 함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단순한 인프라 구축과 응용프로그램 제공에서 더 나아가 IT와 업무가 결합된 컨설팅서비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시스템 구축과 사용 등으로 기업 활동의 전면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IT가 융합된 산업으로 진화하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합니다.

최근의 IT서비스는 인프라와 응용프로그램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클라우드,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IT를 활용하여 급속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기술을 고도화하는 역량을 보유한 기업만이 지속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기타>

□ 운송주선

물류정책기본법상 물류는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 등과 이에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류사업이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① 자동차·철도차량·선박·항공기또는 파이프라인 등의 운송수단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화물운송업, ② 물류터미널이나 창고 등의 물류시설을 운영하는 물류시설운영업, ③ 화물운송의 주선, 물류장비의 임대, 물류정보의 처리 또는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물류서비스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류서비스는 경제성장, 산업의 발전으로 물류전략이 고도화되고 핵심사업 집중을 위한 아웃소싱 증가, 물류비용 절감 필요성 등으로 인해 물류업무를 위탁하는 쪽으로 시장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 금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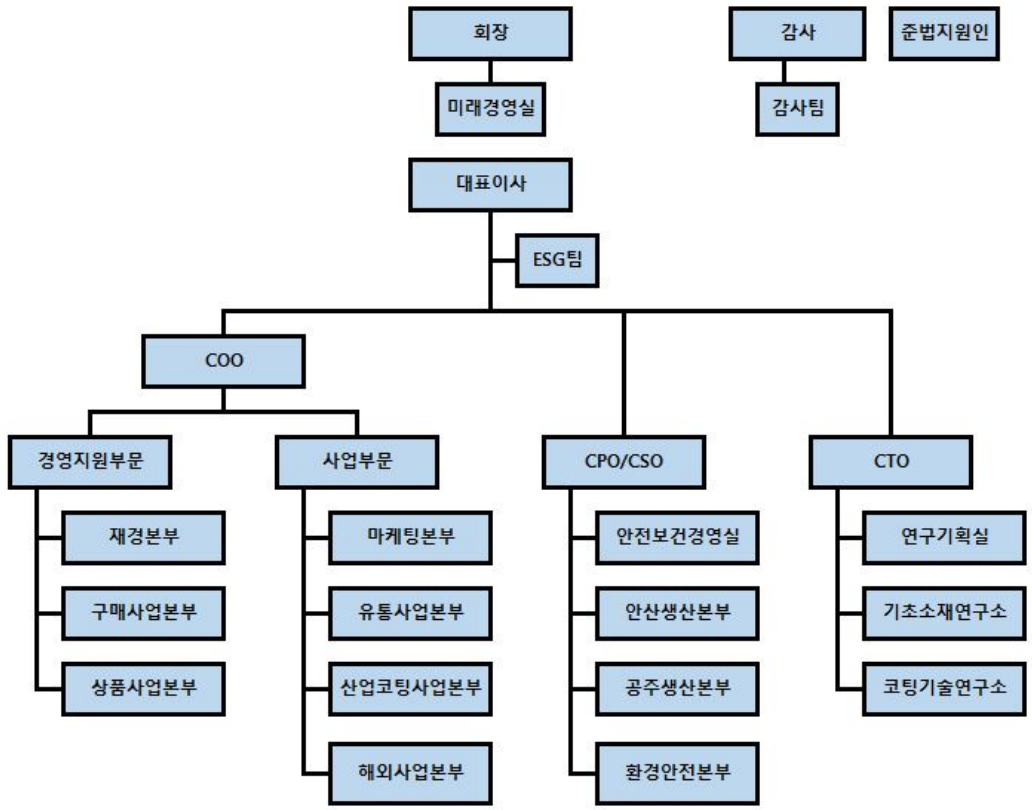
UCH CREDIT(이하 'UCHC')은 키르기스스탄 관련 법률에 의거 키르기스스탄 중앙은행에 등록 후 영업하는 여신전문 금융회사입니다. 키르기스스탄의 금융에서 상업은행을 제외한 Microfinance Organization(이하'MFO')은 규모 및 영업형태에

따라, Microfinance Company(이하 'MFC'), Microcredit Company(이하 'MCC'), Microcredit Agency(이하 'MCA')로 구분됩니다.

MFC는 직·간접적 형태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수신기능이 있으며, MCC 및 MCA는 수신기능이 없고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에 MFC와 차이가 있습니다. UCHC는 MCC에 속하며, 주요 대출대상은 개인 및 기업입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해당사항 없음.

(5)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중 나. 회사의 현황 참조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연결재무상태표·연결포괄손익계산서·연결자본변동표

- 연결현금흐름표·주식 및 재무상태표·포괄손익계산서·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주식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전 연결·별도 재무제표입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및 정기주주총회 승인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에 정인 당사의 연결·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결재무상태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76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5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6(당) 기말		제75(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288,113,092,021		303,516,203,271
현금및현금성자산	32,237,938,654		32,706,474,299	
단기금융상품	3,284,026,277		909,047,515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48,742,527,661		148,963,798,770	
재고자산	101,003,724,413		113,195,331,680	
기타유동자산	2,677,970,112		3,523,809,948	
금융업채권	166,904,904		276,000,807	
매각예정자산	-		3,941,740,252	
Ⅱ. 비유동자산		299,073,182,112		308,581,532,895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4,447,263,414		2,397,876,560	
장기금융상품	6,000,000		6,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842,497,496		6,441,320,096	
관계기업및공동기업투자	2,591,752,671		1,919,467,215	
유형자산	248,352,838,547		257,180,552,490	

사용권 자산	5,135,078,743		5,267,127,021	
투자부동산	18,285,627,929		18,517,424,723	
영업권	298,834,158		2,318,394,799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6,890,695,463		6,882,816,790	
순확정급여자산	2,862,840,029		1,534,059,964	
이연법인세자산	929,950,479		597,788,698	
기타비유동자산	754,659,174		721,143,186	
금융업채권	2,675,144,009		4,797,561,353	
자 산 총 계		587,186,274,133		612,097,736,166
부 채				
Ⅰ. 유동부채		225,145,199,247		218,092,920,3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97,052,465,709		114,797,810,522	
단기차입부채	113,165,162,311		94,674,767,182	
당기법인세부채	7,671,019,131		2,455,220,069	
유동충당부채	2,335,404,078		1,198,703,470	
이연수익	107,172,131		111,071,776	
기타유동금융부채	148,430,526		770,800,000	
기타유동부채	4,665,545,361		4,084,547,325	
Ⅱ. 비유동부채		62,316,117,204		98,082,807,141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161,886,898		171,696,534	
장기차입부채	45,670,950,850		80,787,213,128	
이연법인세부채	14,482,137,647		15,400,174,54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740,000,000		272,100,000	
종업원급여부채	1,261,141,809		1,451,622,933	
부 채 총 계		287,461,316,451		316,175,727,485
자 본				
Ⅰ.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 되는 자본		298,524,252,781		294,741,759,683
자본금	13,601,734,500		13,601,734,500	
기타불입자본	9,470,082,872		9,470,082,872	
기타자본구성요소	767,228,878		843,893,181	
이익잉여금	274,685,206,531		270,826,049,130	
Ⅱ. 비지배지분		1,200,704,901		1,180,248,998
자 본 총 계		299,724,957,682		295,922,008,68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87,186,274,133		612,097,736,166

- 연결포괄손익계산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76(당) 기		제75(전) 기	
I. 매출액		646,039,531,651		631,605,900,694
II. 매출원가		525,919,037,953		536,116,745,169
III. 매출총이익		120,120,493,698		95,489,155,525
IV. 판매비와관리비		100,266,099,376		94,665,495,597
판매비	34,816,631,001		34,647,601,891	
관리비	65,449,468,375		60,017,893,706	
V. 영업이익		19,854,394,322		823,659,928
VI. 금융손익		(6,291,893,626)		(3,880,558,741)
금융이익	968,095,520		1,410,462,077	
금융원가	7,259,989,146		5,291,020,818	
VII. 기타영업외손익		(3,318,552,377)		1,741,623,426
기타이익	7,866,069,276		4,667,162,033	
기타손실	11,184,621,653		2,925,538,607	
VIII. 지분법투자손익		42,443,522		174,740,601
지분법투자이익	203,478,505		174,740,601	
지분법투자손실	161,034,983		-	
IX. 종속기업처분손익		385,169,088		-
종속기업처분이익	439,012,717		-	
종속기업처분손실	53,843,629		-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10,671,560,929		(1,140,534,786)
XI. 법인세비용		5,173,513,505		1,285,136,504
XII. 당기순손익		5,498,047,424		(2,425,671,290)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601,315,155		(2,447,636,571)	
비지배지분	(103,267,731)		21,965,281	
XIII. 기타포괄손익		558,416,571		4,140,049,466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분류될 수 있는 항목		229,701,730		4,526,603,107
외화환산외환차이	233,465,895		4,476,643,884	
지분법자본변동	(3,764,165)		49,959,22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28,714,841		(386,553,641)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323,647,850)		(706,590,847)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52,362,691		320,037,206	
XIV. 총포괄손익		6,056,463,995		1,714,378,176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6,128,887,621		1,663,296,815	
비지배지분	(72,423,626)		51,081,361	
XV.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237		(104)
희석주당손익		237		(104)

- 연결자본변동표

<연결자본변동표>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비지배지분	총 계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2021.01.01(전기초)	13,407,368,500	4,383,615,054	(2,947,002,999)	276,413,359,045	1,057,767,637	292,315,107,237
배당금의 지급	-	-	-	(3,459,710,550)	(19,800,000)	(3,479,510,550)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2,447,636,571)	21,965,281	(2,425,671,290)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320,037,206	-	320,037,206
외화환산외환차이	-	-	4,443,588,532	-	33,055,352	4,476,643,884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	-	(702,651,575)	-	(3,939,272)	(706,590,847)
지분법자본변동	-	-	49,959,223	-	-	49,959,223
전환사채의 전환	194,366,000	2,846,357,601	-	-	-	3,040,723,601
주식선택권의 행사	-	(18,482,547)	-	-	-	(18,482,547)
교환사채의 발행	-	1,061,507,438	-	-	-	1,061,507,438
교환사채의 교환	-	1,288,285,326	-	-	-	1,288,285,326
종속기업 신규취득	-	(91,200,000)	-	-	91,200,000	-
2021.12.31(전기말)	13,601,734,500	9,470,082,872	843,893,181	270,826,049,130	1,180,248,998	295,922,008,681
2022.01.01(당기초)	13,601,734,500	9,470,082,872	843,893,181	270,826,049,130	1,180,248,998	295,922,008,681
배당금의 지급	-	-	-	(2,359,067,000)	(2,390,836)	(2,361,457,836)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5,601,315,155	(103,267,731)	5,498,047,424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652,362,691	-	652,362,691
외화환산외환차이	-	-	200,637,397	-	32,828,499	233,465,896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	-	(323,647,850)	-	-	(323,647,850)
지분법자본변동	-	-	(3,764,165)	-	-	(3,764,165)
종속기업의 처분	-	-	50,110,315	(35,453,445)	93,285,971	107,942,841
2022.12.31(당기말)	13,601,734,500	9,470,082,872	767,228,878	274,685,206,531	1,200,704,901	299,724,957,682

- 연결현금흐름표

<연 결 현 금 흐 림 표>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
업

(단위 : 원)

과 목	제76(당) 기	제75(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2,223,297,727	(27,003,473,097)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8,829,744,253	(19,916,888,382)
이자의 수취	426,475,308	172,618,426
배당금의 수취	9,450,000	285,200,000
이자의 지급	(5,508,996,012)	(4,039,476,902)
법인세의 납부	(1,533,375,822)	(3,504,926,239)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6,591,836,788)	(14,112,804,616)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3,728,982,589)	(11,618,154,470)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747,999,120)	-
기타채권의 증가	(410,441,996)	(157,614,867)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0,500,000)	-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633,606,100)	-
유형자산의 취득	(18,474,972,112)	(15,543,814,336)
투자부동산의 취득	-	(18,560,773,376)
무형자산의 취득	(1,856,373,469)	(2,974,909,865)
연결범위변동으로 인한 순현금 증감	(10,656,276)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1,356,327,810	32,846,003,923
기타채권의 감소	956,576,354	678,483,741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27,010,000	160,000
유형자산의 처분	443,455,643	174,627,410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4,169,880,000	-
무형자산의 처분	-	507,949,807
정부보조금의 증가	2,158,445,067	535,237,417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5,509,042,235)	27,519,319,512
단기차입금의 상환	(45,629,166,121)	(34,579,676,056)
장기차입금의 상환	-	(4,386,783,762)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7,714,200,000)	(4,244,134,030)
사채의 상환	-	(25,000,000,000)
리스부채의 상환	(1,141,594,301)	(1,213,275,462)
기타금융부채의 감소	(259,900,000)	-
배당금의 지급	(2,361,322,856)	(3,479,302,215)
신주발행비용	-	(8,932,832)
주식선택권의 행사	-	(6,270)
단기차입금의 차입	34,497,141,043	70,086,550,139
장기차입금의 차입	17,100,000,000	20,430,000,000
교환사채의 발행	-	9,914,880,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 (I + II + III)	122,418,704	(13,596,958,201)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706,474,299	46,315,030,48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590,954,349)		(11,597,981)
V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237,938,654		32,706,474,299

-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6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1. 지배기업의 개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이하 "지배기업")는 1946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1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기말 현재 지배기업은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시설인 안산공장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31일로 종료되는 보고기간에 대한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의 종속기업(이하 통칭하여 "연결실체"), 연결실체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 주요사업 내용 :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 및 시공
- (2) 대표이사 : 류 기 봉, 배 맹 달
- (3)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 및 지분율

주 주 명	소유주식수(주)	지 분 율(%)
김장연	7,427,422	27.30
기타주주	19,776,047	72.70
합 계	27,203,469	100.00

(4)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속기업명	주요 영업활동	영업 소재지	결산월	지분율 (%)	종속기업 소유지분
위해삼화도료유한공사	도료	중국	12월	100.00	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22.5%
삼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도료	중국	12월	100.00	
SAMHWA PAINTS VINA COMPANY LIMITED	도료	베트남	12월	100.00	
(주)에스엠투네트웍스	서비스	한국	12월	100.00	
(주)삼화로지텍	운송주선	한국	12월	100.00	
Samhwa Paints(M) Sdn. Bhd	도료	말레이시아	12월	100.00	
홍앤톤즈(주)	도료	한국	12월	100.00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투자자문	한국	12월	81.76	
UCH Credit microcredit Company.,LLC	금융	키르기스스탄	12월	100.00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100% (유효지분율 81.76%)
SAMHWA PAINTS INDIA PRIVATE LIMITED	도료	인도	3월	100.00	(주)삼화로지텍 1%
SAMHWA-VH COMPANY LIMITED	도료	베트남	12월	100.00	
(주)삼화대림화학	화학제품 제조	한국	12월	100.00	
SAMHWA PAINTS SOUTH INDIA LLP (주1)	도료	인도	3월	100.00	(주)삼화로지텍 10%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30호	부동산투자 및 임대	한국	7월	100.00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7.69% (유효지분율 98.60%)
------------------------	------------	----	----	--------	---------------------------------------

(주1) 당기 중 SAMHWA PAINTS SOUTH INDIA LLP는 자본금 회수가 완료되었으며, 청산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5) 당기말 현재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매출액	당기순손익	당기총포괄손익
위해상화도료유한공사	4,237,611,461	6,353,173,033	(2,115,561,572)	6,072,405,345	(1,197,357,240)	(1,107,968,077)
상화도료(장가항)유한공사	35,176,769,739	10,399,630,411	24,777,139,328	46,109,917,880	307,365,903	(302,533,081)
SAMHWA PAINTS VINA COMPANY LIMITED	22,206,740,514	6,330,253,812	15,876,486,702	32,641,757,399	2,555,303,561	2,892,982,908
(주)에스엠투네트웍스	7,537,973,732	4,786,853,621	2,751,120,111	13,011,737,580	(294,227,537)	(294,227,537)
(주)상화로지텍	2,510,662,039	1,459,344,563	1,051,317,476	19,177,910,561	(38,196,222)	(38,196,222)
Samhwa Paints(M) Sdn. Bhd	326,918,034	983,761,428	(656,843,394)	815,461,270	(346,408,069)	(341,254,050)
홀맨트즈(주)	238,495,038	1,271,055,020	(1,032,559,982)	89,400,464	(62,704,935)	(62,704,935)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주1)	6,613,875,718	151,928,807	6,461,946,911	1,084,247,553	90,116,427	434,300,972
SAMHWA PAINTS INDIA PRIVATE LIMITED	10,254,196,828	8,277,265,508	1,976,931,320	16,959,986,042	2,933,323,186	2,763,997,266
SAMHWA-VH COMPANY LIMITED	10,640,934,905	2,975,382,273	7,665,552,632	7,648,004,534	(319,469,566)	(73,679,238)
(주)상화대림화학	12,538,023,016	5,428,339,745	7,109,683,271	5,894,547,044	(202,003,960)	(202,003,960)
제이알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 30호	19,071,292,072	13,815,510,687	5,255,781,385	-	(793,636,200)	(793,636,200)

(주1)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재무정보입니다.

(6) 당기말 현재 연결실체에 각 종속기업별로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과 재무상태, 경영성과 및 배당금액 중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몫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주)유씨에이치 파트너스	제이알전문투자형 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0호
비지배지분이 보유한 소유지분율	18.24%	1.40%
누적 비지배지분	1,126,923,960	73,780,941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16,437,236	(11,110,906)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총포괄손익	47,281,341	(11,110,906)
당기 중 비지배지분에게 지급된 배당금	-	2,390,836

(7)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든 종속기업의 재무제표는 지배기업의 보고기간과 동일한 보고기간의 재무제표를 이용하였습니다.

(8) 당기 중 연결재무제표의 연결범위변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지역	기업명	사유
연결제외	국내	이노에프앤아이(주)	지분매각
	중국	상화재료과기(광동)유한공사	청산

2. 연결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장 폐쇄, 자가격리, 입국제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연결실체의 영업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아직 알 수 없고, 향후 전개되는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의 지속기간, 심각성은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정부나 연결실체의 보호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중단이 발생하고 영업규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무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경영진은 연결실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지역 및 영업 부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VID-19가 연결실체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은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연결실체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실체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 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연결실체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주식선택권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주식선택권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적용된 가정 및 평가 모델은 주석 34에 기술하였습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실체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실체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4.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연결실체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 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을 정의하고 공시하도록 하며, 중요성 개념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제회계기준 실무서 2 '회계정책 공시'를 개정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이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 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실체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연결기준

연결재무제표는 지배기업과 지배기업(또는 그 종속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다른 기업 (특수목적기업 포함)의 재무제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1) 피투자자에 대한 힘, 2) 피투자자에 대한 관여로 인한 변동이익에 대한 노출 또는 권리, 3) 투자자의 이익금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피투자자에 대하여 자신의 힘을 사용하는 능력의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할 때 지배력이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기 지배력의 3가지 요소 중 하나 이상에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는 사실과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피투자자를 지배하는지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피투자자 의결권의 과반수 미만을 보유하더라도, 피투자자의 관련활동을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능력을 가지기에 충분한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다면 피투자자에 대한 힘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가 보유하고 있는 의결권이 피투자자에게 대한 힘을 부여하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평가할 때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모든 관련 사실과 상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보유 의결권의 상대적 규모와 다른 의결권 보유자의 주식 분산 정도
- 연결실체, 다른 의결권 보유자 또는 다른 당사자가 보유한 잠재적 의결권
- 계약상 약정에서 발생하는 권리
- 과거 주총에서의 의결양상을 포함하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점에 연결실체가 관련활동을 지시하는 현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다른 추가적인 사실과 상황

당기 중 취득 또는 처분한 종속기업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취득이 사실상 완료된 날부터 또는 처분이 사실상 완료된 날까지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포함됩니다.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최초 인식한 금액에 취득이후 자본 변동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비례지분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비지배지분이 부(-)의 잔액이 되더라도 총포괄손익은 비지배지분에 귀속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를 구성하는 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연결재무제표에서 채택한 회계정책과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재무제표를 적절히 수정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 내의 거래, 이와 관련된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등은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모두 제거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소유지분변동은 자본거래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의 지배지분과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은 종속기업에 대한 상대적 지분변동을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의 조정금액과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의 공정가치의 차이는 자본으로 직접 인식하고 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시키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한 경우, (i) 수취한 대가 및 보유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액과 (ii) 종속기업의 자산(영업권 포함)과 부채, 비지배지분의 장부금액의 차이금액을 처분손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이전에 인식한 금액에 대하여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즉,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거나 직접 이익잉여금으로 대체)와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지배력을 상실한 날에 이전의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 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계기업 또는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시의 원가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4) 사업결합

종속기업 및 사업의 취득은 취득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습니다. 사업결합 이전대가는 피취득자에 대한 지배력을 대가로 이전하는 자산, 연결실체가 발행하였거나 부담하는 부채 및 발행한 지분의 취득일(교환일)의 공정가치의 합계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자산, 인수부채 및 우발부채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취득일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이연법인세자산이나 부채와 종업원급여약정과 관련된 자산이나 부채는 각각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9호 '종업원급여'에 따라 인식하고 측정하고 있습니다.
- 연결실체가 피취득자의 주식기준보상을 자신의 주식기준보상으로 대체하면서 발생한 부채나 지분상품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따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에 따라 측정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이 취득일 현재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식별가능한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순액이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 연결실체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공정가치의 합계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액은 즉시 염가매수차익으로 당기손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취득일에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요소가 현재의 지분이며 청산시에 보유자에게 기업 순자산의 비례적 몫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비지배지분은 취득일에 1) 공정가치나 2)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순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금액 중 현재의 지분상품의 비례적 몫 중 하나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측정기준의 선택은 각 취득 거래별로 이루어집니다. 그 밖의 모든 비지배지분 요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 측정기준을 달리 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사업결합으로 인한 연결실체의 이전대가에는 조건부 대가 약정으로 인한 자산과 부채를 포함하고 있으며 조건부 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인한 이전대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득일 이후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급하여 조정하고 해당 영업권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이란 '조정기간' (취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한 추가적 정보를 획득하여 발생하는 조정사항을 말합니다.

측정기간 조정사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조건부 대가의 공정가치 변동액은 조건부 대가의 분류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자본으로 분류된 조건부 대가는 이후보고일에 재측정하지 않고 결제되는 경우 자본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조건부 대가는 이후 보고일에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결합에서, 연결실체는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을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재측정하고 그결과 차손익이 있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취득일 이전에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가치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이전에 보유한 지분을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에 대한 최초 회계처리가 사업결합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까지 완료되지 못한다면, 연결실체는 회계처리가 완료되지 못한 항목의 잠정 금액을 연결재무제표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측정기간(위 참고) 동안에 취득일 현재 존재하던 사실과 상황에 대하여 새롭게 입수한 정보가 있는 경우 연결실체는 취득일에 이미 알았더라면 취득일에 인식된 금액의 측정에 영향을 주었을 그 정보를 반영하기 위하여 취득일에 인식한 잠정금액을 소급하여 조정하거나 추가적인 자산과 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5)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관계기업이란 연결실체가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을 말하며, 유의적인 영향력이란 피투자회사의 재무정책과 영업정책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그러한 정책에 대한 지배력이나 공동지배력은 아닌 것을 말합니다.

공동기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을 말하며,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에 의하여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기업과공동기업의 당기순손익, 자산과 부채는 지분법을 적용하여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됩니다. 지분법을 적용함에 있어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는 취득원가에서 지분취득 후 발생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분변동액을 조정하고, 각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였습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실질적으로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연결실체의 순투자의 일부분을 구성하는 장기투자항목을 포함)을 초과하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손실은 연결실체가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를 지고 있거나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만 인식합니다.

취득일 현재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공정가치순액 중 연결실체의 지분을 초과하는 매수원가는 영업권으로 인식하였습니다. 영업권은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되며 투자자산의 일부로서 손상여부를 검토합니다. 매수원가를 초과하는 식별가능한 자산, 부채 그리고 우발부채의 순공정가치에 대한 연결실체의 지분해당이 재검토 후에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이후에도 기존의 관계기업과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자산 중 일부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의 당해 투자자산의 공정가치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에 따른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의 공정가치로 간주합니다. 이 때 보유하는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는 관계기업(또는 공동기업)처분손익에 포함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를 직접 처분한 경우의 회계처리와 동일한 기준으로 그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과 관련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모든 금액에 대하여 회계처리합니다. 그러므로 관계기업이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손익을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게되는 경우, 투자자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때에 손익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그리고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이 감소하지만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했던 손익이 관련 자산이나 부채의 처분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경우라면, 그 손익 중 소유지분의 감소와 관련된 비례적 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또한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의 일부가 매각예정분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 제1105호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여부를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전체 장부금액(영업권 포함)을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에 따라 회수가능액(순공정가치와 사용가치 중 큰 금액)과 비교하여 손상검사를하고 있습니다. 인식된 손상차손은 관계기업과 공동기업투자의 장부금액의 일부를 구성하는 어떠한 자산(영업권 포함)에도 배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상차손의 환입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산의 회수가능액이 후속적으로 증가하는 만큼 인식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투자가 공동기업투자가 되거나 반대로 공동기업투자가 관계기업투자로 되는 경우, 연결실체는 지분법을 계속 적용하며 잔여 보유지분을 재측정하지 않습니다.

연결실체가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과 거래를 하는 경우,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은 연결실체와 관련이 없는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6) 공동영업에 대한 투자

공동영업은 약정의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당사자들이 그 약정의 자산에 대한 권리와 부채에 대한 의무를 보유하는 공동약정으로, 공동지배력은 약정의 지배력에 대한 계약상 합의된 공유로서, 관련활동에 대한 결정에 지배력을 공유하는 당사자들 전체의 동의가 요구될 때에만 존재합니다.

연결실체가 공동영업 하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자로서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과 관련하여 다음을 인식합니다.

- 자신의 자산. 공동으로 보유하는 자산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자신의 부채. 공동으로 발생한 부채 중 자신의 몫을 포함
- 공동영업에서 발생한 산출물 중 자신의 몫의 판매 수익
- 공동영업의 산출물 판매 수익 중 자신의 몫
- 자신의 비용. 공동으로 발생한 비용 중 자신의 몫을 포함

연결실체는 공동영업에 대한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을 특정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적용하는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에 자산을 판매하거나 출자하는 것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그것은 공동영업의 다른 당사자와의 거래를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결실체는 거래의 결과인 손익을 다른 당사자들의 지분 한도까지만 인식하고 있습니다.

공동영업자인 연결실체가 공동영업과 자산의 구매와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 연결실체는 자산을 제3자에게 재판매하기 전까지는 손익에 대한 자신의 몫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7) 영업권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영업권은 지배력을 획득하는 시점(취득일)에 원가에서 누적손상차손을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상검사를 위하여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가 예상되는 연결실체의 현금창출단위(또는 현금창출단위집단)에 배분됩니다.

영업권이 배분된 현금창출단위에 대해서는 매년 그리고 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마다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할 경우, 손상차손은 먼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잔여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를 구성하는 다른 자산들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영업권의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직접 인식되어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추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 현금창출단위를 처분할 경우 관련 영업권 금액은 처분손익의 결정에 포함됩니다.

관계기업을 취득함에 따라 발생하는 영업권에 대한 연결실체의 회계정책은 주석 4 (5)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8) 현금및현금성자산

연결실체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 및 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9)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0)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 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도로 등 제품판매	제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유형별, 품목별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변동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 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연결실체는 보고기간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
화학제품의 위수탁제조 기술 서비스의 제공	위수탁제조 제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역은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청구서는 용역서비스가 완료되는 대로 고객에게 발행됩니다	위수탁 제조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연결실체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받은 대가의 일부를 고객충성제도로 배분합니다. 이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되거나 소멸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1)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연결실체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연결실체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결실체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결실체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연결실체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실체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연결실체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연결실체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연결실체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연결실체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연결실체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연결실체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연결실체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연결실체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연결실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연결실체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연결실체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12) 외화환산

각 연결대상 기업들의 개별재무제표는 그 기업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해 개별기업들의 경영성과와 재무상태는 지배기업의 기능통화이면서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대한민국 원화(KRW)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개별기업들의 재무제표 작성에 있어서 그 기업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외화)로 이루어진 거래는 거래일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화폐성 외화항목은 보고기간 말의 환율로 재환산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재환산하지만, 역사적 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재환산하지 않습니다.

화폐성 항목의 외환차이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발생하는 기간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미래 생산에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중인 자산과 관련되고, 외화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조정으로 간주되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외환차이
-	특정 외화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	해외사업장과 관련하여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결제할 계획도 없고 결제될 가능성도없는 채권이나 채무로서 해외사업장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화폐성항목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 이러한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순투자의 전부나 일부 처분시점에서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결실체에 포함된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 말의 환율을 사용하여 '원'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환율이 당해 기간 동안 중요하게 변동하여 거래일의 환율을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손익항목은 당해 기간의 평균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외환차이를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자본(적절한 경우 비지배지분에 배분)에 누계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을 처분하는 경우(즉 연결실체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지분 전부의 처분,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는 처분, 공동약정의 지분의 부분적 처분 또는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의 부분적 처분 이후 보유하는 지분이 해외사업장을 포함하는 금융자산이 되는 경우), 지배기업에 귀속되는 해외사업장관련 외환차이의 누계액 전액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그 해외사업장과 관련된 외환차이의 누계액은 제거하지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해외사업장을 포함한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일부 처분의 경우,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비지배지분으로 재귀속시키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 외의 모든 일부 처분의 경우(즉 유의적인 영향력이나 공동지배력의 상실을 가져오지 않는 연결실체의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에 대한 소유지분의 감소)에는 외환차이의 누계액 중 비례적 지분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고 있습니다.

해외사업장의 취득으로 발생하는 영업권과 식별가능한 자산과 부채에 대한 공정가치조정액은 해외사업장의 자산과 부채로 처리하고 보고기간말의 환율로 환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외환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 정부보조금

연결실체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연결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연결실체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연결실체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연결실체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6)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결실체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연결실체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연결실체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실체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연결실체가 인식된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10년 ~ 40년
구축물	20년
기계장치	3년 ~ 10년
공구기구비품	2년 ~ 5년
차량운반구	1년 ~ 10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9) 무형자산

①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연결실체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연결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1)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가중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22)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연결실체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

사업결합으로 인수한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 보고기간말에 당해 우발부채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과 최초인식금액에서, 적절하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23)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24)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연결실체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연결실체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 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연결실체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모형

연결실체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역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연결실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연결실체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3)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연결실체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가 연결채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연결실체는 연결실체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연결채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25)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연결실체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연결실체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연결실체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연결실체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연결실체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연결실체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연결실체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연결실체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연결실체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연결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연결실체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연결실체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6) 비파생금융부채

연결실체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연결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연결실체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

)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7) 주식기준보상

연결실체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 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8) 주당이익

연결실체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연결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9) 금융수익과 비용

연결실체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 연결실체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30) 재무제표 승인

연결실체의 연결재무제표는 2023년 1월 2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 상세한 주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연결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식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별도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

제76기말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75기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76(당) 기말		제75(전) 기말	
자 산				
Ⅰ. 유동자산		234,317,525,805		255,263,983,041
현금및현금성자산	22,396,574,192		24,165,967,211	
단기금융상품	523,806,150		147,202,11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127,828,781,497		133,048,380,516	
재고자산	82,101,412,136		92,435,077,105	
기타유동자산	1,466,951,830		1,525,615,847	
매각예정자산	-		3,941,740,252	
Ⅱ. 비유동자산		279,127,363,269		275,327,020,310
장기매출채권및기타채권	5,906,093,393		2,838,762,397	
장기금융상품	6,000,000		6,000,000	
기타비유동금융자산	5,398,497,496		5,959,725,096	
종속기업및공동기업투자	31,778,477,811		33,315,300,831	
유형자산	221,429,258,949		219,189,304,269	
사용권자산	3,298,165,220		3,808,248,667	
투자부동산	1,356,974,502		1,496,876,098	
무형자산	6,363,653,721		6,381,146,725	
순확정급여자산	2,844,051,900		1,639,025,951	
기타비유동자산	746,190,277		692,630,276	
자 산 총 계		513,444,889,074		530,591,003,351
부 채				
Ⅰ. 유동부채		201,925,696,959		186,749,749,431
매입채무및기타채무	87,285,901,332		100,630,742,811	
단기차입부채	105,031,387,363		80,824,562,849	
당기법인세부채	3,265,576,194		420,612,196	
유동충당부채	2,335,404,078		1,198,703,470	
이연수익	107,172,131		111,071,776	
기타유동금융부채	99,367,860		668,681,808	
기타유동부채	3,800,888,001		2,895,374,521	
Ⅱ. 비유동부채		48,537,657,626		83,979,071,205
장기차입부채	32,923,451,035		67,004,847,421	
종업원급여부채	1,261,141,809		1,451,622,933	

이연법인세부채	13,673,556,500		15,372,810,376	
기타비유동금융부채	679,508,282		149,790,475	
부 채 총 계		250,463,354,585		270,728,820,636
자 본				
Ⅰ. 자본금	13,601,734,500		13,601,734,500	
Ⅱ. 기타불입자본	10,183,946,190		10,183,946,190	
Ⅲ. 기타자본구성요소	(911,318,980)		(613,015,130)	
Ⅳ. 이익잉여금	240,107,172,779		236,689,517,155	
자 본 총 계		262,981,534,489		259,862,182,71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513,444,889,074		530,591,003,351

- 포괄손익계산서

<포괄손익계산서>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제76(당) 기		제75(전) 기	
I. 매출액		552,352,119,061		544,534,042,000
II. 매출원가		460,015,390,503		469,775,388,884
III. 매출총이익		92,336,728,558		74,758,653,116
IV. 판매비와관리비		80,288,235,240		77,540,723,061
판매비	29,789,017,193		32,001,396,090	
관리비	50,499,218,047		45,539,326,971	
V. 영업손익		12,048,493,318		(2,782,069,945)
VI. 금융손익		(4,943,662,772)		(1,952,538,607)
금융이익	686,796,272		2,128,117,491	
금융원가	5,630,459,044		4,080,656,098	
VII. 기타영업외손익		1,469,607,770		1,939,037,626
기타이익	7,560,702,678		4,509,237,888	
기타손실	6,091,094,908		2,570,200,262	
VIII.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손상차손		1,836,823,020		3,790,913,318
IX.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처분이익		1,279,937		37,474,317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6,738,895,233		(6,549,009,927)
XI. 법인세비용		1,614,535,300		143,043,338
XII. 당기순손익		5,124,359,933		(6,692,053,265)
XIII. 기타포괄손익		354,058,841		(292,977,924)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354,058,841		(292,977,924)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298,303,850)		(613,015,130)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요소	652,362,691		320,037,206	
XIV. 총포괄손익		5,478,418,774		(6,985,031,189)
XV. 주당손익				
기본주당손익		217		(285)
희석주당손익		217		(285)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불입자본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총 계
2021.01.01(전기초)	13,407,368,500	5,006,278,372	-	246,521,243,764	264,934,890,636
배당금의 지급	-	-	-	(3,459,710,550)	(3,459,710,550)
총포괄이익					
당기순손실	-	-	-	(6,692,053,265)	(6,692,053,265)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	-	(613,015,130)	-	(613,015,130)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320,037,206	320,037,206
주식선택권의 행사	-	(18,482,547)	-	-	(18,482,547)
전환사채의 전환	194,366,000	2,846,357,601	-	-	3,040,723,601
교환사채의 발행	-	1,061,507,438	-	-	1,061,507,438
교환사채의 교환	-	1,288,285,326	-	-	1,288,285,326
2021.12.31(전기말)	13,601,734,500	10,183,946,190	(613,015,130)	236,689,517,155	259,862,182,715
2022.01.01(당기초)	13,601,734,500	10,183,946,190	(613,015,130)	236,689,517,155	259,862,182,715
배당금의 지급	-	-	-	(2,359,067,000)	(2,359,067,000)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	-	-	5,124,359,933	5,124,359,933
기타금융자산평가손익	-	-	(298,303,850)	-	(298,303,850)
확정급여제도의재측정요소	-	-	-	652,362,691	652,362,691
2022.12.31(당기말)	13,601,734,500	10,183,946,190	(911,318,980)	240,107,172,779	262,981,534,489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과목	제76(당)기	제75(전)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26,052,973,436	(30,023,168,592)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	30,973,823,269	(26,001,455,545)
이자의 수취	306,483,557	381,683,098
배당금의 수취	167,080,646	1,412,265,790
이자의 지급	(4,833,114,459)	(3,023,659,768)
법인세의 납부	(561,299,577)	(2,792,002,167)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3,071,685,392)	2,716,481,016
장·단기금융상품의 증가	(1,242,531,850)	(11,088,397,250)
기타채권의 증가	(607,640,000)	(2,626,197,200)
기타유동자산의 증가	(747,999,120)	-
유형자산의 취득	(16,989,234,944)	(12,545,944,745)
무형자산의 취득	(1,810,576,469)	(2,902,321,835)
종속기업 및 공동기업투자의 취득	(400,000,000)	(6,000,000,000)
기타금융자산의 증가	(40,500,000)	-
장·단기금융상품의 감소	865,927,810	32,341,446,703
기타유동금융자산의 감소	-	160,000
기타채권의 감소	889,365,120	4,137,585,200
유형자산의 처분	354,889,057	81,462,919
무형자산의 처분	-	507,949,807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4,169,880,000	-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101,279,937	275,500,000
정부보조금의 증가	2,158,445,067	535,237,417
기타비유동금융자산의 감소	227,010,000	-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360,826,657)	13,407,252,074
단기차입금의 상환	(30,000,000,000)	(25,000,000,000)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17,714,200,000)	(2,714,200,000)
사채의 상환	-	(25,000,000,000)
배당금의 지급	(2,358,932,020)	(3,459,502,215)
리스부채의 상환	(1,248,194,637)	(1,124,986,609)
신주발행비용	-	(8,932,832)
주식선택권의 행사	-	(6,270)
단기차입금의 차입	20,000,000,000	55,000,000,000
장기차입금의 차입	17,100,000,000	5,800,000,000
교환사채의 발행	-	9,914,880,000
임대보증금의 감소	(139,500,000)	-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 (I+II+III)	(1,379,538,613)	(13,899,435,502)
V.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4,165,967,211	38,074,290,154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으로 인한 효과	(389,854,406)	(8,887,441)
V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22,396,574,192	24,165,967,211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제76(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처분예정일	2023년 3월 24일	처분확정일	2022년 3월 25일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단위 : 원)

구 분	제 76(당) 기		제 75(전) 기	
미처분이익잉여금		192,449,424,503		189,128,951,879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6,672,701,879		195,500,967,938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	652,362,691		320,037,206	
당기순이익	5,124,359,933		(6,692,053,265)	
이익잉여금처분액		5,897,667,500		2,456,250,000
이익준비금		-		97,183,000
현금배당 (주당배당금(율) 당기 250원(50%) 전기 100원(20%))	5,897,667,500		2,359,067,000	
차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86,551,757,003		186,672,701,87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76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5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

1. 회사의 개요

삼화페인트공업주식회사(이하 "당사")는 1946년 4월 9일에 설립되었으며, 1993년 9월 10일 주식을 한국거래소가 개설한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회사입니다. 당기말 현재 당사는 경기도 안산시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있으며, 주요 생산시설인 안산공장을 비롯하여 국내 다수의 지점과 영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주요사업 내용 : 각종 도료의 제조, 판매 및 시공
- (2) 대표이사 : 류기봉, 배맹달
- (3)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 및 지분을

주주명	소유주식수(주)	지분율(%)
김장연	7,427,422	27.30
기타주주	19,776,047	72.70
합계	27,203,469	100.00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별도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파생상품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상품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확정급여부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 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COVID-19의 확산으로 각국 정부는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공장 폐쇄, 자가격리, 입국제한, 여행 금지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이 당사의 영업에 미칠 궁극적인 영향은 아직 알 수 없고, 향후 전개되는 국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COVID-19의 지속기간, 심각성은 매우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으며, 정부나 당사의 보호조치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중단이 발생하고 영업규모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무 영향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지만 경영진은 당사가 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지역 및 영업 부문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COVID-19가 당사의 영업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와 기간은 아직 결정할 수 없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1) 영업권의 손상차손

영업권의 손상 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의 계산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2)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특정 기간동안 과세소득의 일정 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를 산정하는 데에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4)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주식기준보상거래의 보상원가를 주식선택권 부여일의 공정가치를 기준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공정가치는 주식선택권 부여조건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모델을 적용하여 추정합니다. 또한 주식선택권의 변동성, 무위험이자율 등을 포함한 평가모델에 가장 적절한 가격결정요소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러한 요소에 대한 가정을 수립합니다. 적용된 가정 및 평가모델은 주석 34에 기술하였습니다.

(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6)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4.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4.1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1) 회사가 채택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 1116호 '리스' 개정 - 2021년 6월 30일 후에도 제공되는 코로나19 관련 임차료 할인 등

코로나19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임차료 할인 등이 리스변경에 해당하는지 평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실무적 간편법의 적용대상이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지급하여야 할 리스료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료 감면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리스이용자는 비슷한 상황에서 특성이 비슷한 계약에 실무적 간편법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 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 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공정가치 측정

(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 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이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으로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 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 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 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약속된 대가를 기초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의 수행의무의 특성과 이행시기, 유의적인 대금 지급조건과 관련 수익인식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재화나 용역의 특성, 수행의무 이행시기, 유의적인 지급조건	수익인식 정책
도료 등 제품판매	제품은 고객에게 인도되고 고객이 인수한 시점에 통제가 이전되며, 이 시점에 청구서를 발행하고 수익이 인식됩니다.	<p>제품이 고객에게 이전되어 고객이 인수한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p> <p>계약상 고객에게 반품권을 부여한 경우, 수익은 누적수익 금액 중 유의적인 환원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유형별, 품목별 등 과거 정보를 이용한 예상되는 반품 추정치를 반영한 금액을 변동대가로 보아 수익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따라 반품부채와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기업의 권리에 대하여 자산이 인식되었습니다.</p> <p>환불부채를 결제할 때 고객에게서 제품을 회수할 권리에 대해 인식하는 자산은 처음 측정할 때 제품의 이전 장부금액에서 그 제품 회수에 예상되는 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마다 반품될 제품에 대한 예상의 변동을 반영하여 자산과 부채의 측정치를 새로 수정합니다.</p>
화학제품의 위수 탁제조 기술 서비스의 제공	위수탁제조 제품의 기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용역은 계약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제공되며, 청구서는 용역서비스가 완료되는 대로 고객에게 발행됩니다.	위수탁 제조 기술 서비스의 경우 용역이 제공되는 동안에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 가치를 높이므로 용역이 제공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충성제도	고객충성제도 하에서 당사는 판매액의 일부를 미래 제품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제공으로 배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받은 대가의 일부를 고객충성제도로 배분합니다. 이 배분액은 상대적 개별 판매가격에 따라 측정됩니다. 고객충성제도로 배분된 금액은 이연되며 포인트가 사용될 때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6) 리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①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 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리스기간 종료일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 측정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 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 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 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재무상태표에서 투자부동산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는 사용권자산을 유형자산과 구분하여 표시하고 리스부채는 '차입부채'로 표시하였습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 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②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가 중간리스제공자인 경우에는 상위리스와 전대리스를 각각 회계처리합니다. 또한 전대리스의 분류는 기초자산이 아닌 상위리스에서 생기는 사용권자산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위리스가 인식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단기리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대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약정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된 경우에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합니다.

당사는 리스순투자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제거와 손상 규정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추가로 리스총투자를 계산하는데 사용한 무보증잔존가치에 대한 정기적인 재검토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운용리스로 받는 리스료를 '기타수익'의 일부로써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7) 외화환산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인 기능통화 및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는 대한민국의 원화(KRW)입니다.

당사의 기능통화 외의 통화로 이루어진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기록됩니다.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외화로 표시된 화폐성 항목은 보고기간종료일의 환율, 역사적원가로 측정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거래일의 환율,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항목은 공정가치가 결정된 날의 환율로 환산됩니다. 외화자산·부채의결제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발생한 기간의 당기 손익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외환손익은 관련 외환손익이 발생하게 된 거래나 사건의 성격에 따라 금융이익·원가 또는 기타이익·손실로 분류됩니다.

(8)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제조와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하고 있으며, 기타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적격자산이란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을 필요로 하는 자산을 말하며, 금융자산과 단기간 내에 제조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생산되는 재고자산은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취득시점에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있는 자산인 경우에도 적격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하여 차입한 자금을 한하여, 보고기간 동안 그 차입금으로부터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에서 당해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생긴 투자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자본화가능차입원가로 결정하며, 일반적인 목적으로 자금을 차입하고 이를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자산 관련 지출액에 자본화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자본화가능차입원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자본화이자율은 보고기간동안 차입한 자금(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특정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 제외)으로부터 발생한 차입원가를 가중평균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 동안 자본화한 차입원가는 당해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차입원가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9) 정부보조금

당사는 정부보조금에 부수되는 조건의 준수와 보조금 수취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경우에만 정부보조금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인 정부대여금의 효익은 정부보조금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해당 정부보조금은 시장이자율에 기초하여 산정된 정부대여금 공정가치와 수취한 대가의 차이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련정부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 재무상태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정부보조금은 관련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비를 감소시키는 방식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수익관련정부보조금은 보상하도록 의도된 비용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인식하며, 이미 발생한 비용이나 손실에 대한 보전 또는 향후 관련원가의 발생 없이 당사에 제공되는 즉각적인 금융지원으로 수취하는 정부보조금은 수취할 권리가 발생하는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0)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기여제도

확정기여제도와 관련하여 일정기간 종업원이 근무용역을 제공하였을 때에는 그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확정기여제도에 납부해야 할 기여금에 대하여 자산의 원가에 포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기여금은 이미 납부한 기여금을 차감한 후 부채(미지급비용)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납부한 기여금이 보고기간말 이전에 제공된 근무용역에 대해 납부하여야 하는 기여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기여금 때문에 미래 지급액이 감소하거나 현금이 환급되는 만큼을 자산(선급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 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 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⑤ 해고급여

당사는 해고급여의 제안을 더 이상 철회할 수 없을 때와 해고급여의 지급을 수반하는 구조조정에 대한 원가를 인식할 때 중 이른 날에 해고급여에 대한 비용을 인식합니다. 해고급여의 지급일이 12개월이 지난 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11)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 또는 사업결합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이자와 벌금은 법인세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법인세에 해당한다면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를 적용하고 법인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 법인세부담액은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됩니다.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항목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 때문에 과세소득과 포괄손익계산서상 세전손익은 차이가 발생합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부채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율 및 세법에 근거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상계를 합니다.

- 인식된 금액에 대한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가지고 있음
-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음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이월된 미사용 세무상결손금과 세액공제,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합니다. 미래 과세소득은 관련 가산할 일시적차이의 소멸에 의해 결정됩니다. 가산할 일시적차이가 이연법인세자산을 완전히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현재 일시적차이들의 소멸과 당사의 사업계획을 미래 과세소득에 고려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측정할 때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라 법인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12)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로 측정하고 있으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원가는 당해 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지출로서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와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될 것으로 최초에 추정되는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이를 제외한 유형자산은 아래에 제시된 개별 자산별로 추정된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건물	40 년
건축물	20 년
기계장치	10 년
차량운반구, 공구기구비품	5 년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에 비교하여 중요하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유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0~40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을 처분하거나, 투자부동산의 사용을 영구히 중지하고 처분으로도 더 이상의 미래경제적효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투자부동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투자부동산이 제거되는 시점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4) 무형자산

① 개별취득하는 무형자산

내용연수가 유한한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하며, 추정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종료일에 재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구 분	내 용 연 수
산업재산권	5년 ~ 8년
개발비	5년
소프트웨어	5년

②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 연구 및 개발원가

연구활동에 대한 지출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개발활동(또는 내부프로젝트의 개발단계)과 관련된 지출은 해당 개발계획의 결과가 새로운 제품의 개발이나 실질적 기능 향상을 위한 것이며 당사가 그 개발계획의 기술적, 상업적 달성가능성이 높고 소요되는 자원을 신뢰성있게 측정가능한 경우에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그 무형자산이 위에서 기술한 인식조건을 최초로 충족시킨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의 합계이며,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않는 개발원가는 발생시점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에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③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

사업결합으로 취득하고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 후에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④ 무형자산의 제거

무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이나 처분을 통한 미래경제적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때 해당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을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의 제거로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하고 있으며, 해당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 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6)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원가는 미착품을 제외하고는 가중평균법에 따라 결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실현가능가치는 정상적인 영업과정의 예상판매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완성원가와 판매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매출원가는 재고자산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며,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7) 종속기업 및 지분법피투자기업 지분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입니다. 당사는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에 따른 원가법을 선택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한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각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은 부채의 고유한 위험과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세전 이자율입니다. 시간경과에 따른 충당부채의 증가는 발생시 금융원가로 당기손익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당사가 의무를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변제금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19) 전환사채

전환사채의 부채요소는 최초 인식 시 전환권이 없는 유사한 사채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전환으로 인한 소멸 또는 만기까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자본요소는 최초 인식시 전체 전환사채의 공정가치에서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법인세효과를 반영한 금액으로 인식하고, 이후 재측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거래원가는 부채요소와 자본요소의 장부금액 비율로 안분하여 계상합니다.

(20)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매출채권과 발행 채무증권은 발행되는 시점에 최초로 인식됩니다. 다른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에 거래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 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 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 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 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한다면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1)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 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 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2)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 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상환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 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3) 후속측정과 손익

당기손익 -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차손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서 발생하는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이자수익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되고,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차손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기타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	이러한 자산은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금은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절대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채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채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21)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 발생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 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 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 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 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2)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시점에 당기손익 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에 따른 금융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은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고, 나머지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 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④ 금융보증부채

금융보증계약은 채무상품의 최초 계약조건이나 변경된 계약조건에 따라 지급기일에 특정 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하여 보유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발행자가 특정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계약입니다.

금융보증부채는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며,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면 다음 중 큰 금액으로 후속측정하여야 합니다.

- (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에 따라 결정된 금액
- (나)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3) 주식기준보상

당사는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종업원에게 주식이나 주식선택권을 부여하는주식결제형 주식보상거래에 대하여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 또는 제공받는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다면 부여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정가치를 간접 측정하고 그 금액을 가득기간 동안에 종업원급여(당기비용)과 자본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주식선택권의 가득조건이 용역제공조건 또는 시장조건이 아닌 가득조건인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가득되는 주식선택권의 실제 수량에 기초하여 결정되도록 인식된 종업원비용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현금을 지급하는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의 경우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과 그 대가로 부담하는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가득기간동안 종업원 급여비용과 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채가 결제될 때까지 매 보고기간 말과 최종결제일에 부채의 공정가치를 재측정하고, 공정가치의 변동액은 종업원급여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영업손익과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 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희석주당이익은 종업원에게 부여한 주식기준보상 등 모든 희석화효과가 있는 잠재적 보통주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 및 가중평균유통보통주식수를 조정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25)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배당금수익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의 처분에서 발생하는 순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순손익
-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에 대한 외환손익
- 상각후원가 혹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손상차손(혹은 손상차손환입)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배당금 수익은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26)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1월 27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4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 ※ 상세한 주석사항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별도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연결재무제표 및 별도재무제표, 주석 등은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된 것으로 회계감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2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 상기 이사의 수는 2023년 보수지급 대상이 되는 총 이사의 수이며 주주총회 후 이사의 수는 5명(사외이사 2명)입니다.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명(2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23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명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억원

(전 기)

감사의 수	1명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억원
최고한도액	3억원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15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상법시행령 제31조(주주총회의 소집공고) 제4항 제4호에 의거하여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및 세부위치 : <http://www.samhwa.com> 'IR' > '투자정보' > '공고'
- 상기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후 변경사항, 오기 등이 있는 경우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된 사업보고서는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업데이트 될 예정이므로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사항

1. 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당사는 주총분산 자율준수프로그램에 동참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사전에 확정된 임원의 주요 경영활동 관련 일정 및 이사회 일정, 원활한 주주총회 준비를 위한 제반과정 및 외부감사일정을 고려한 결과 개최일 변경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집중일에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2.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전자위임장 권유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s://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 <https://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14일 9시 ~ 2023년 3월 23일 17시(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

다.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가능한 인증서 한정)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 처리

3.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 사항

- COVID-19 확산과 관련하여 방역관리 지침과 총회장 건물 보건안전수칙에 따라 총회장 건물 출입 시 ①체온측정계로 체온 측정, ②마스크 착용을 요청드릴 예정이며, 총회장 건물 출입 전 ③손소독제 사용을 부탁드립니다.
- 총회 참석자의 체온 측정결과 발열 등 의심환자 발생 시 격리공간으로 안내 및 총회장 출입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주님들께서는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해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